

희귀자료 망라한 포토저널리즘의 역사

최인진 지음 「韓國新聞寫眞史」

신문은 세상소식을 가장 빨리 어디서나, 그리고 싼 값에 전해주는 매체였고, 전파매체가 발달한 현재에도 그 역할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런데 만약 세상보기의 창구이자 프리즘인 신문에 뻑뻑히 활자만 가득하다면 현장감은 분명 반감될 것이며, 따라서 신문사진은 '뉴스'를 생동감 넘치게 하는 에너지원이 된다.

그런 점에서 최인진씨(동아일보 편집국 사진부장, 한국사진사연구회 소장)가 최근 펴낸 「韓國新聞寫眞史」(열화당)는, 우리의 귀중한 '포토저널리즘'을 반듯한 그릇에 담아낸 진지한 성과물로 주목받을 만한 저서다. 신문사진의 역사를 '보는' 문화의 발달사와 저널리즘의 시각적 확장의 역사로 규정짓고 있는 저자는, 우리에게 신문문화의 첫 체험을 안겨준 「漢城旬報」가 창간된 1883년에서 해방직전까지를 정리의 시간적 공간으로 잡고 그 기간동안의 신문사진의 흐름은 물론, 사진기자들의 취재활동을 귀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분석하고 있다.

기왕의 단편적인 정리수준을 뛰어넘은 체계적 신문사진사로 읽히는 이 책에서 먼저 돋보이는 것은 역시 보기 힘들었던 자료사진. 꼭 신문사진사에 국한시키지 않더라도 신문사진의 특성상 이 자료사진들은 일반사에서도 소중히 다뤄야 할 것들이며, 2백여점에 달하는 중요자료 중에는, 목판에 의해 최초로 사진을 인쇄 보도한 「그리스도 신문」에 실렸던 사진 '얼음에 영긴 배'를 비롯해 '을축년 대홍수 사진화보' '무장 항일투쟁 사진화보' '정신대 관련사진' '손기정선수 일장기 말소 사진' 등 우리 근대사의 단면을 보여주기에 손색없는 사진자료가 망라돼 있다.

'희귀자료 모음'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 이 책에서 저자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일제 식민기의 우리 신문사진사를 "단순히 사진기재의 발달사나 사진의 형태변천사로 보지 않고 사진표현의 역사, 사진기자의 정신사, 우리 모두의 시각적 사고의 발달사로 파악"하며, "고난의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우리의 신문사진은 어떤 정신에서, 어떤 방법으로 시대정신을 담아내고 있었느냐를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했다"고 밝힌다.

이같은 저자의 관점은 사진사 연구자와 현직 사진기자라는 입장과 맞물려, ▲사진취재 활동에 대한 통제와 ▲검열에 의한 사진삭제, 신문압수, 강제폐간 같은 일제의 언론탄압과

▲전근대적 취재장비, 사진촬영과 사진제판을 겸해야 했던 열악한 근무환경 ▲사진기자를 사진기술자로 취급했던 당시의 전반적 낮은 인식과 기사중점적이었던 편집체계에 맞서 현장과의 집요한 싸움을 벌이며, 뉴스사진을 고집했던 사진기자들의 정신사와 그들의 힘으로 이뤄진 신문사진의 변천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모두 10장으로 구성된 이 책의 각 장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제1장은 크림전쟁과 미국의 남북전쟁을 거치며 회화양식을 극복하고 독자성을 확보하는 포토저널리즘의 성립과정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것으로 짜여져 있다. 이어 뉴스사진이 없었던 초기신문이 발행된 1883년부터 1910년까지의 기간을 우리 신문사진의 '여명기'로 보고, 민간지들의 신문사진 게재 배경 등을 제2장에서 살펴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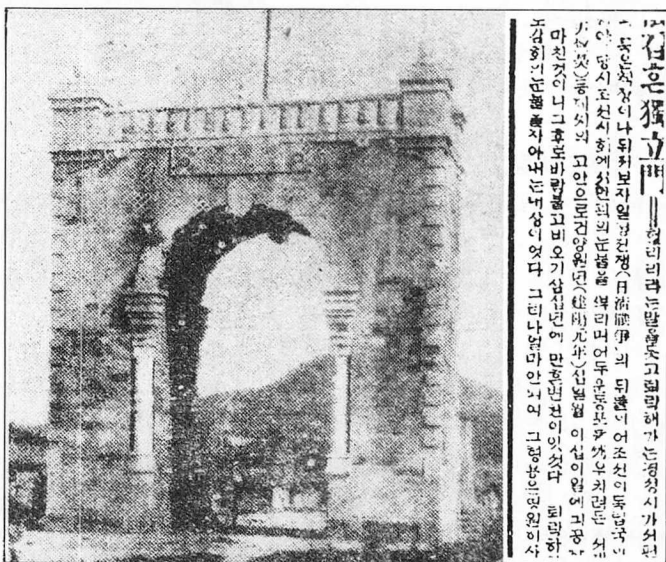
「매일신보」와 신문사진(제3장)과 「정착과 발달」(4장)에서 저자는 일제의 본격적인 언론탄압을 다루고 있는데, 1907년에 공포된 광무신문지법과 이듬해의 신문규칙이 「악법중의 악법」이었다고 강조한다. 이같은 언론탄압책은 합방과 동시에 「매일신보」를 제외한 모든 신문의 폐간으로 이어졌고, 관급사진이 주로 게재되었던 「매일신보」는 망판법에 의한 사진인쇄를 실현하는 매체가 되기도 했다. 그러다가 1920년대 들어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 민간지가 계속 창간되면서 우리의 포토저널리즘이 정착됐고, 뉴스사진의 초점도 민족 현실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데 맞춰 '한국신문사진의 원년'이 된 때라고 저자는 규정짓는다.

현장사진과 스케치사진에서 화보형식으로 확장되는 신문사진의 영역을 다룬 제5장에서 저자는, 사진만으로도 사건을 전달할 수 있다는 의식의 전환을 뜻하는 '화보 등장'에 많은 지면을 할애한다. 이 책에 실린, 「조선일보」(38년 8월 21일)의 '참담을 극한 新上 일대수재참적' 화보와 「동아일보」(20년 7월 13일)에 게재된 3·1운동 민족대표들의 공판 사진 화보 등 5장에 실린 화보들은 삽화로서의 신문사진 역할을 갠 대표적인 화보로서의 가치를 지니며, "사진기자들의 이러한 현장취재정신에 의해 리포터들이 통계숫자만으로 엉성하게 만든 기사도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고.

1925년 4월 전조선 민중운동대회를 무산시킨 경찰당국의 사진기자에 대한 취재방해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진취재 탄압사건으로 기록



위) 한글간편이 눈길 끄는 '사진관' 사진.



우측) 「조선일보」(1925. 7. 14) 제2면에 실렸다가 압수처분된 '독립문 전경사진.'

된다는 것으로 시작되는 제6장 '사진취재와 표현의 탄압'과 제7장 '일장기 말소 사진'은 20년대 중반부터 30년대 중반까지의 시기를 다루고 있는데, 취재방해와 사진삭제 그리고 신문압수 및 폐간에 얽힌 이야기를 담고 있다. 무장항일투쟁과 6·10만세사건, 광주학생의 거 사진 등 사진이 무조건 삭제되고 신문이 압수된 사례를 보여주고 있으며, 저자는 특히 일장기가 말소된 손기정선수의 올림픽 마라톤 우승 사진원본의 출처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이 사건이 사진기자의 구속과 「동아일보」정간, 「조선중앙일보」 폐간이 잇따르고 있음에 주목, 저자는 예외적이게도 여러 사진자료를 실어 눈길을 끈다.

이같은 사건이 계기가 돼 이른바 한국신문의 암흑기로 불리는 30년대 후반부터 45년까지의 신문사진을 다룬 제8장에서는,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이 발발 한반도가 병참기지화되

고 40년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폐간된 시대상을 설명하고 있으며, 일제에 의해 '불허가' 도장을 받은 사진을 신는 한편 사진을 통한 여론조작의 실례를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의 후반부인 제9장과 10장에서는 사진제판과 촬영을 병행하면서도 취재장비와 사진현장의 열악한 환경을 극복했던 당시 사진기자들의 투철한 직업의식과, 그런 상황속에서도 속도경쟁을 벌였던 취재활동을 다루고 있으며, 카메라를 중심으로 한 취재장비의 변천사와 사진전송에 관해서도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다.

그동안 뚜렷한 관심을 얻지 못했던 이 분야를 최초로 본격 접근한 「한국신문사진사」는 한국신문사진의 형식과 내용의 역사뿐 아니라 우리 사진기자들의 정신사로 지속적인 연구의 초석이 될 만한 책이다.

— 최태원 기자